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아프리카 3개국, 테초바닌(Techobanine) 대수심항만 개발 사업 MOU 체결----- 2
- 유럽투자은행, 슬로베니아 코퍼항(Port of Koper) 개발에 3,500만 유로 대출----- 3
- 인도네시아 석유·가스부문 국내연안선사보호법(cabotage law)에서 면제 발표----- 4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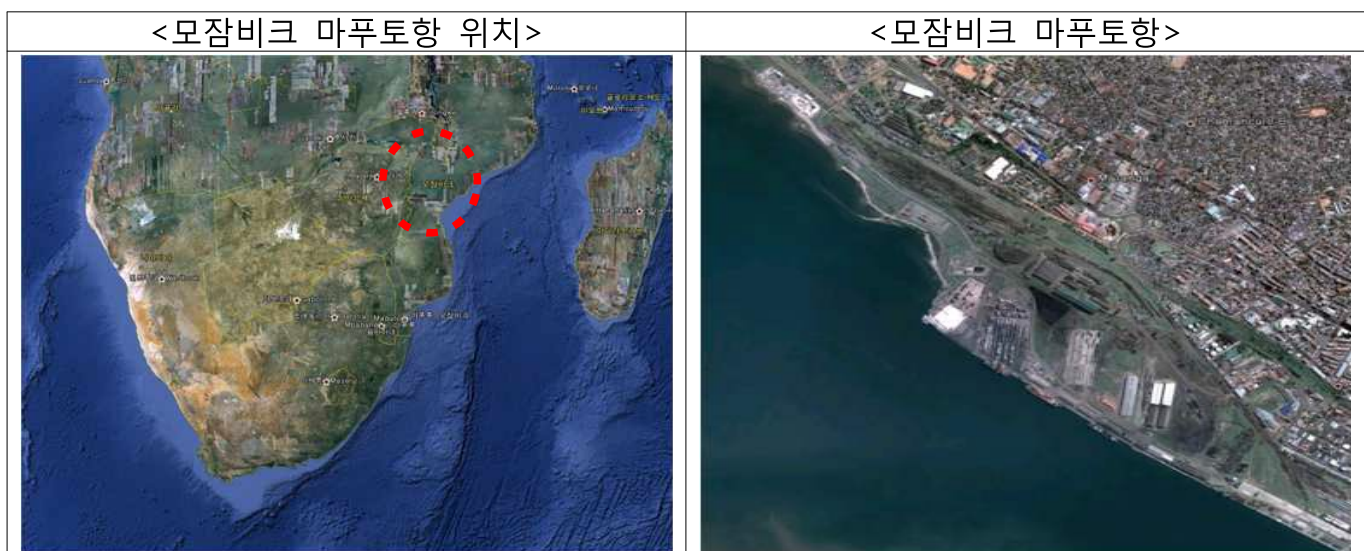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위클리

□ 아프리카 3개국, 테초바닌(Techobanine) 대수심항만 개발 사업 MOU 체결

- 4월 18일 모잠비크 지역신문인 Notícias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국가인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3개국이 모잠비크의 마푸토(Maputo) 지역 테초바닌(Techonanine)에 대수심항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함
- 대수심항만 개발을 위한 이번 MOU의 내용은 201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여 공사기간 4년에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총 개발규모는 3만 헥타르로 이중 11,000 헥타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내륙국가인 짐바브웨이 및 보츠와나를 철도로 연계하는 철도건설사업도 포함
 - 한편 이번 개발 사업은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가 합쳐진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
- 대수심항만과 내륙철도시설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농산물, 비료, 광물자원, 석탄,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식민지 시절부터 계획된 오랜 숙원사업임
 -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 모잠비크 정부, 도벨라(Dobela)항만개발청, 항만 및 철도 운영사(Portos e Caminhos de Ferro de Moçambique) 간에도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국제물류위클리 86호 참조



자료 : Dredging Today, 2011. 4. 18.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유럽투자은행, 슬로베니아 코퍼항(Port of Koper) 개발에 3,500만 유로 대출

- 유럽투자은행(EIB; Europe Investment Bank)은 슬로베니아 코퍼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및 장비구입에 3,500만 유로 대출을 확정
 - 코퍼항은 유럽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사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이며, TEN-T 6번 프로젝트인 Lyon - Trieste - Divača/Koper - Ljubljana - Budapest - Ukrainian 연계사업과 관련된 사업임
 - 이번 EIB의 결정에 대해 유럽투자은행의 중앙유럽 대출 책임자이자 부행장인 Mr. Anton Rop는 “슬로베니아 수출입 및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코퍼항 개발을 통해 친환경 운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대출은 코퍼항 운영사인 Luka Koper에 대출하는 것이며, Luka Koper사는 과거 국영기업이었으나 1993년 민영화되어 코퍼항 대부분의 자산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수익금으로 코퍼항의 시설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슬로베니아 코퍼항 위치>



<코퍼항 확장 예정지>



자료 : www.eib.org, 2011. 4. 11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 인도네시아 석유·가스부문 국내연안선사보호법(cabotage law)에서 면제 발표

- 인도네시아 교통통신부는 석유 및 가스부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안선사보호법에서 석유·가스분야를 제외시킨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는 육지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연안으로 탐사를 확대시키고 있고 국가가 목표한 일일생산량 97,000배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연안을 운행하고 있는 선박은 2011년 3월에 총 531척으로 이중 12%만이 외국 선박이었고, 이중에서도 특히 연안지역 탐사선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아울러 2008년에 비준된 Cabotage 법안 341조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선박은 서비스 제공 3년 후부터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연안선사보호법을 통해 ①실행조사(perform survey) ②삭굴작업(drilling) ③해상건설(offshore contruction) ④해상활동(offshore activities) ⑤준설(Dredging work) ⑥구조작업(salvage work)의 6가지 분야에 대해 외국선박의 활동을 제한해 왔음
- 그러나 법률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선박계약이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자료: ci-online 2011.4.13 /Jakartaglobe 2011.4.10 /www.searates.com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